

지역 소식통



고창장학재단 직원들 전주장학속 환경정비

(재)고창군장학재단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근 고창(전주)장학속의 환경정비에 나섰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고창(전주)장학속은 105명 정원에 9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전주지역에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청결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이에 고창군장학재단 직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전주장학속 대청소에 나섰다.

고창군장학재단에서선 수시로 장학속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체온계를 비치해 왔다. 또 매일 2회 체온측정,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고창군에서 제작한 마스크 배부하는 등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ASF 예방 '총력'

정읍시가 지난 26일과 27일 강한 비바람을 가진 태풍 '바비'가 지나간 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바이러스 유입 차단 당부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남부지방을 비롯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을 따라 오염된 부유물이 퍼지고, 오염원과 접촉한 차량·사람·매개체를 통해 양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야생멧돼지 울타리와 매몰지, 포획틀을 점검하고 하천 주변과 도로 일제소독, 농장 단위 방역 조치, 하천 부유물 제거 등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불요불급 예산편성 지양”

“보통교부세 감소 전망” 권익현 부안군수, 내년도 예산 관련 연석회의서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불요불급 예산편성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불요불급 예산편성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31일 열린 8월 중 연석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의 내국세 징수율이 저조해짐에 따라 내국세의 영향을 받는 보통교부세가 약 100억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1년 본예산의 간축편성이 불가피한 만큼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소모성·행사성 예산은 동결하고 신규 편성은 자체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행정절차 이행 등 예산집행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제9호 태풍 ‘미삭’이 이번주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고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환자도 30%까지 급증했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모임이나 타 지역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어업인 운영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변경을”

부안군, 농어촌군수협 통해 해수부·산자부 등에 건의 ‘기존 산업용보다 저렴’

부안군은 바다에서 어획된 각종 수산물의 보관과 유통을 위해 생산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전기요금을 기존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으로 변경 적용해 줄 것을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를 통해 해수부와 산자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수협과 어촌계가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전기요금은 농사용을 적용받고 있으나 똑같은 시설과 용도에 정작 생산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저온저장시설은 표준산업분류 중 운수 및 창고업으로 분류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공급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용 기

본요금은 kwh당 8,320원으로 농사용의 6.8배 수준이다.

군에 따르면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은 어업인들이 잡은 어획물의 선도 유지는 물론 전어와 꽃게 등 일시다육성 어종의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시설 중 하나라는 점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요하며 특히, 동일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인데도 수협과 어촌계가 운영할 경우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생산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이 불합리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군은 생산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관내 다수 어업인들의 생산 및 유통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수산물의 제값받이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고창군, 환경공무직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고창군이 청소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환경 공무직 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은 군민이 배출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처리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환경시설사업소는 소장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공무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무직직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느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 사업소에서는 사 위기를 늘리는 등 시설을 개보수해 공무직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군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총량에 봉투 최대용량을 75l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폭우·폭염에는 작업시간 단축, 작업 중지 등을 시행하고, 산업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보건관리자의 건강체크 등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살 예방의 날... 정읍시, 생명사랑 사진 공모전

9월 16일까지 접수

정읍시는 오는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진을 통해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는 정읍시민(초·중·고·대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생명 사랑과 자살 예방 2개의 주제다.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진을 비롯해 자살 예방을 홍보하는 내용, 이웃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SNS(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

태그(#생명사랑의날 #자살예방사진공모전 #HEROES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작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당선작은 주제의 부합성과 작품성, 참신성, 홍보 활용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해 9월 중 개별통지와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당선작에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별로 대상(2명) 각 25만원, 최우수(8명), 우수(8명), 입선(10명)에 각각 15만원, 10만원, 5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으로 정읍 시민이 이해와 사랑,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은 물론,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인기’

‘정읍see’ · ‘발랄한 정읍데’ 누적 조회수 23만뷰 돌파

정읍시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지역의 관광명소와 먹거리 등 숨겨진 매력을 알리는 새로운 홍보 매체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SNS를 활용한 홍보기법이 다양해지면서 지난해부터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see’와 ‘발랄한 정읍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다양한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정읍시 인지도 향상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두 채널의 구독자 수는 2,500여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23만뷰를 넘어섰다.

‘정읍see’는 시정의 주요 소식과 단품미인씨름단, 정읍 9경 등 정보 영상을 공무원이 직접 제작하고 편집해 업로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102개의 영상을 공개해 누적 조회 수가 약 16만7,000뷰에 이르렀다.

또한, ‘발랄한 정읍데’는 낚치는 흥과 기로 먹방과 브이로그(VLOG)에 집중하며 정읍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특목 튀는 순발력과 임기응변은 물론, 망가진 모습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다.



정읍시 공식 유튜브 캡처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아마추어 느낌의 B급 감성으로 관광객이 만드는 홍보 영상은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며 구독자와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참여형 브이로그와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 소통의 창구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 홍보팀 관계자는 “유튜브는 활용 가능성이 높고 확산 속도도 빠른 최적의 홍보 수단이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해 정읍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유튜브 채널은 ‘발랄한 정읍데’와 ‘정읍see’를 검색해 구독 및 시청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